

보도해명자료

(’14. 6. 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100억 규모 연구실 유휴장비 새주인 찾았다”
(’14.6.20, 디지털타임스)

1. 기사내용

- ☐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휴장비로 양수희망기관에 이전한 78대 중, 구입한지 3년 안팎의 장비 8대가 포함
- ☐ 이는 장비 구입시 신중성이 결여된 일회성 장비 구입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학, 공공연구기관 등에 구축되어 공공 장비로 활용중인 장비 중, 유휴장비를 양수희망기관에 이전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장비 활용도를 제고하고, 국민 세금을 아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
- ☐ 금번 유휴장비 재활용사업에 포함된 ‘구입후 3년 안팎의 장비 8대’는, 산업부의 사업 취지에 공감한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동활용에 제공한 장비이며 이는 장려대상
 - 해당 장비는 ‘11년말에 종료 (성공 판정)된 연구개발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 기업 (사업수행기관)이 구입한 장비로, 기술료를 완납하여 해당 기업이 정상적으로 소유하고 단독으로 사용해 온 장비임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 김현철 (044-203-4510)
사무관 전성규 (044-203-4503)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